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2.06.11 (통권403호)



## 경제이슈

美 연준, 미국 경제의 긍정적 진단  
국내 경기, 대외 불안 속 완만한 개선흐름

## 경영노트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의 대안

## 사회 트렌드

돈보다 삶의 질 찾는 의사들

## 저널 브리프

To-Do List 작성 방법

## 洗心錄

똑똑해지는 스마트폰에 대해 조금은  
안심해도 되는 이유

□ 美 연준, 미국 경제의 긍정적 진단

-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지난 6일 '베이지북1)'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4~5월 경제를 긍정적으로 진단
  - 현 경기진단 : 연준의 12개 관할 지역 대부분이 경기 회복세를 보였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
  - 제조업 :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 신규 주문 등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자동차, 철강, IT 분야에 강한 성장세를 보임
  - 서비스업 :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를 나타내며, 5월 ISM 서비스업 지수도 53.7p로 30개월째 기준선을 상회
- 연준의 긍정적인 경기진단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경기 침체와 재정 긴축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미국 경기의 회복세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전망

□ 국내 경기, 대외 불안 속 완만한 개선흐름

-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대외 불안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 고용 : 4월중 취업자는 서비스업과 내수 업종 등에서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45.5만명 증가한 2,476만명을 기록
  - 물가 : 5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여 안정세 지속
  - 금융시장 : 5월중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며 KOSPI주는 전월대비 7.0% 하락,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50.3원 상승
- 국내 경제는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와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존하고 있어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찾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1)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Federal Reserve Board)가 발표하는 경제동향종합보고서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과 각 지역경제를 조사·분석한 것을 모은 책으로 매년 8차례 발표됨

□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의 대안 : 비즈니스 모델 혁신<sup>2)</sup>

- 기업들은 프로세스 및 제품 혁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더 효과적임
  - 제품이나 프로세스 혁신에서 비롯된 경쟁 우위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에 의해 약화되거나 무너지기 쉬움
  -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모방하거나 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신성, 고착성, 상호보완성, 효율성의 가치 동인을 적절히 활용해야 함

< 비즈니스 모델 혁신 성공 사례 >

	내 용
참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신성은 활동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정도를 의미</li> <li>• 온라인 여행사 프라이스라인은 고객이 원하는 가격을 올려놓은 후 판매자의 승인을 기다리는 역(逆)시장을 도입해 완전히 새로운 교환방법을 창출함</li> </ul>
고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착은 전환비용을 야기하거나 비즈니스 참가자들이 해당 활동 시스템 내에 머무르며 거래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활동</li> <li>• 네슬레는 자사가 생산한 커피 캡슐을 사용해야 하는 에스프레소 기계를 출시하여 기계 판매 및 기계 사용을 통해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li> </ul>
보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 모델 활동 간에 존재하는 상호 보완성이 지닌 가치 개선 효과를 의미함</li> <li>• 이베이(eBay)는 온라인 지불업체 페이팔(PayPal)의 인수를 통해 판매자가 신용카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거래활성화를 유도함</li> </ul>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시스템의 상호 연결을 통한 비용절감을 의미함</li> <li>• 델컴퓨터는 미리 제품을 만들어 재고를 쌓아두었다가 소매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전통적인 판매방식 대신 주문을 받은 후 제품을 생산하는 고객 중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함</li> </ul>

2) 본 자료는 MIT Sloan Management Review의 'Creating Value Through Business Model Innovation(Spring 2012)'을 요약정리함

□ 돈보다 삶의 질 찾는 의사들<sup>3)</sup>

- **의사들의 전공 선택이 바뀌고 있음**
  - 고액 연봉이 보장된다며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 몰렸던 과거와 달리 ‘삶의 질’을 위해 비인기 전공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 “조금 덜 벌더라도 여유롭게 살자”는 게 이들의 생각임
  - 의대생들 사이에선 ‘피안성’ 대신 ‘마방진(마치과·방사선과·진단의학과)’이 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전공의 모집 현황’에 따르면 ‘마방진’은 각각 정원의 89.9%, 95.5%, 83.0%를 확보했음**
  - 여전히 정원 100%를 채우지 못했지만 2003년 방사선과와 진단의학과가 각각 45.0%, 37.2% 확보에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임
- **‘마방진’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이유는 개업의 대신 월급쟁이 의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올해 4월 내놓은 ‘2011년 의원의 경영실태 조사분석’에 따르면 전체 개업의의 36%가 부채가 있고, 70%는 ‘지금보다 병원 경영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
  - ‘개업=성공’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봉급의’가 늘어나는 이유임
- **갈수록 떨어지는 의료 수가 때문에 각 전공 간 수입격차가 줄어드는 것도 이같은 추세를 부추기고 있음**
  - “어느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벌이가 시원찮은 건 마찬가지니까 이왕이면 몸이 편한 전공을 택하자”는 것임
  - 가령 진단검사의학과와 의 경우 응급 상황도 없고 기계로 나오는 검사 결과만 해독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고 함
  - 의사들 사이에선, 환자의 QOL(Quality of Life, 삶의 질)도 챙겨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 의사들의 QOL도 챙겨야 한다는 얘기가 많음

3) “피안성 지고, 마방진 뜬다, 돈보다 삶의 질 찾는 의사들”(중앙일보, 2012.6.11)

□ To-Do List 작성 방법<sup>4)</sup>

■ 업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업무 목록(To-Do List) 작성 및 활용 방법 5가지를 소개함

- 링크드인(Linkedin)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설문 응답자 중 11%만이 계획한 업무를 완료하는 것으로 밝혀짐

① **소요 시간을 기록할 것** : 일주일동안 수행한 업무들에 대해 각각의 소요 시간을 정기적으로 기록해 볼 것

- 평상시 비생산적인 일에 상당한 양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② **사소한 업무도 빼놓지 말 것** : 업무 목록 작성 시 매일 반복되는 일 또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모두 목록에 포함시킬 것

-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목록을 더 많이 삭제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

③ **할 일은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적을 것** : 업무 목록은 추상적으로 적지 않고 세분화하여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적을 것

- '제안서 작성' 이라고 적는 대신 '자료수집', '경쟁사 분석'이라고 적는다면 업무 내용 및 목표가 명확해져 업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음

④ **계획에 어긋난 업무는 빨리 떨쳐낼 것** :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업무들은 '어려운' 업무, '필요 없는' 업무, '하고 싶지 않은' 업무의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처리할 것

- '어려운' 업무는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 없는' 업무는 동료와 상의해 정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삭제하고, '하고 싶지 않은' 업무는 일부 위임한다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음

⑤ **업무 우선순위를 점검할 것** :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발생하여 기존 업무목록이 밀리게 될 경우 목록에서 업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것

- 반복된 점검 및 수정을 통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업무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음

---

4) 'To-Do List 정복을 위한 5가지 팁'(CIO매거진, 2012.06.05) 참조

□ 똑똑해지는 스마트폰에 대해 조금은 안심해도 되는 이유

휴대폰에 컴퓨터가 결합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기기 중독은 더 이상 사회적 관심사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나 길을 걸을 때 혹은 근무할 때도 그리고 심지어 직접 대면하고 소통할 때도 스마트기기는 항상 사람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친구이자 조연자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무엇이든 찾으려면 보여주고 무엇이든 물으면 대답해주는 스마트기기 앞에서 더 이상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에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스마트기기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우리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낙관론과 학문적으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독일학을 가르치는 채드웰먼(Chad Welmon) 교수는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접근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12년에 쓴 “Why Google isn't making us stupid or smart”라는 논문에서 우리가 스마트기기에 대해 갖고 있는 공포와 비관론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매체를 대할 때마다 경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1450년대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발명으로 새로운 매체가 된 책과 이후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히 보여주었다. 그 이전까지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만들고 읽고 소유하던 책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산업혁명까지 겹치면서 가히 출판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1770년과 1800년만 비교해도 그 증가율이 150%에 달할 정도였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책의 대중화에 대해 당시 계몽주의를 거친 지식인들이 크게 반기고 이를 권장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책이 출판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기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날이 늘어나는 디지털 정보에 압도당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들 것이 없는 심정이었다는 것이다.

1702년 철학자였던 토마시우스(Christian Thomasius)는 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되고 이들이 쓴 책이 대량으로 출판되는 현상을 “일종의 전염병(a kind of epidemic)”으로 묘사했다. 이런 비판론자 속에는 출판시장의 확장으로 혜택을 받았던 것이 분명한 출판업자들도 있었다. 1795년 독일의 출판업자인 하인즈만(Georg Heinzman)은 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독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생각의 “노리게(pawn)”로 전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놀라운 것은 위대한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 또한 이들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는 그답게 지극히 신중했지만 책의 대중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읽게 할지 모르지만 ‘대충 읽게 만드는’ 나쁜 습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불평했다고 한다.

책의 대중화에 대한 당시 최고 지식인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책 때문에 지식이 대중화되었고 이 덕분에 지식이 가속도로 발전해 오늘날의 풍요를 인류에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자세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우려가 전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래도 너무 많은 책의 너무 쉬운 발간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지식인들은 그만큼 책을 쓰는 데 있어 생각을 거듭했을 것이고 그만큼 이들의 책은 더 큰 의미를 담게 되었을 것이다. 이를 현재의 스마트기기가 지배하는 세상에 투영한다면 스마트기기의 팽창을 우려하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 남용의 덧붙은 피해가 면서 얻고자하는 것은 이전의 어떤 경우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스마트기기의 시대에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여전히 통한다.

**부는 거름과 같아 축적만 되어 있으면 악취를 풍기나,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 톨스토이(1828~1910) : 러시아의 대문호